대출 금리체계 변경될까

금융권, 주먹구구식 결정 지적에 대안찾기 분주

CD·예수금·은행채 금리 등 조달비용 감안 검토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변경 체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구조가 적정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바스켓 방식의 금리 결정 구조'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3개월 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이고, 은행들이 CD 금리에다 높은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체계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고객과 은행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CD금리 체계 대안은=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현재 CD금리 위주의 대출금리 체계 대안으로 CD금리와 예수금, 은행채 금리 등 조달비용을 감안해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꼽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바스켓(바구니)에 어떤 항목을 넣고, 항목마다 가중치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 금리체계는 달라질 것"이라며 "바스켓에는 CD와 예수금, 금융채, 차입금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CD 금리나 3개월짜리 정기예금, 잔존 만기 3개월짜리 금융채 등 만기가 같은 상품을 한데 묶어 가중평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가 없는데도 증권사 직원들이 다른 채권금리 동향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CD금리와 달리 시장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다른 금리를 포함하면 객관성과 안정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은행은 1년짜리 예금금리 또는 은행채 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 변경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은행의 조달비용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산금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변경에 난항 전망=하지만 금리 체계 변경 논의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CD 금리가 급락하자 은행들은 대출 금리 변경을 논의했으나 흐지부지됐다.

금리체계 변경 논의가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담합 소지가 있을뿐더러 은행의 수익성과 고객의 눈높이를 동시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지못했기 때문이다.

은행과 고객의 입장은 한쪽이 이익을 보면 나머지 한쪽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예컨대 은행이 조달비용을 감안해 1년짜리 은행채나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다고 하면 3개월 CD금리보다 장기물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CD 금리에다 은행채 등 다른 금리를 혼합해 가중평균한 경우에도 CD금리보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모 은행 대출 담당자는 "CD금리 체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면 모를까, CD금리 체계와 새로 변경되는 금리체계가 함께 병행돼 선택하게 하면 고객들은 여전히 CD금리를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와 광주은행, 기업은행은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식 후원은행 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윤용로 기업은행장, 강동석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위원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광주·기업銀 여수박람회 성공개최 후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첫 번째 공식 후원사로 광주은행과 기업은행이 선정됐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3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광주은행·기업은행과 공식 후원 은행 협약을 체결했다.

두 은행의 공식후원 협약은 여수박람회의 휘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공식후원으로, 여수박람회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조직위는 이번 공식 후원 은행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과 기업은행에 박람회의 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이들 은행은 박람회의 로고·마스코트·공식후원사 명칭 등을 각종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조직위와 후원 은행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EXPO 통장 개설' 등 공동 프로모션 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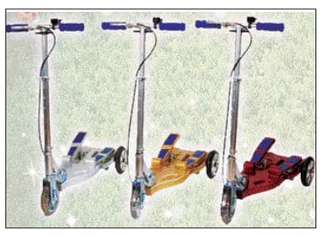
특히 이번 후원 협약을 계기로 향후 휘장사업 대행사인 (주)이노션과 함께 해양, 조선 등 주제관련 기업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사 유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대 삼성 등 6대그룹 미소금융 기부금 확정

국내 주요 대기업그룹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소액대출사업인 미소(美少)금융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확정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6대 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김승유)과 미소금융사업 공동 지원을 위한 협정식을 가졌다.

6대그룹은 10년간 약 1조원(연평균 1천억원)을 미소금융재단에 기부키로 했다. 그룹별 지원금액은 삼성이 3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기아차(2천억원), LG(2천억원), SK(2천억원), 롯데(500억원), 포스코(500억원) 등이다. /연합뉴스



어린이 운동기구 '포구푸쿠' 20일 광주 설명회

(주)크레이터가 어린이 운동놀이기구인 '포구푸쿠 보드'〈사진〉 사업설명회를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주 무등파크 호텔 4층 토파즈 홀에서 개최한다. 시소 구동식 킥보드인 푸쿠푸쿠 보드는 스텝퍼와 킥보드의 장점을 극대화해 놀이하는 즐거움과 동시에 운동효과가 커서 하체 및 근력 강화·유산소 운동, 골다공증 예방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남녀노소가 사용 가능하다고 크레이터측은 설명했다. 문의 061-274-6910, 011-621-4157 /김지을기자 dok2000@

금리 1%P 오르면 연간 이자부담 2조원

시중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이 연간 2조 원 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은행권 변동금리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235조 원이며, 이중 84%인 197조4천억 원은 양도성예금증서(CD)에 금리가 연동하고 있다.

따라서 CD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 9천740억 원 늘어난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중 금리 변동주기가 3개월 이하인 대출은 89.5%에 달하고 3~6개월이 6.4%로 뒤를 이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2005년 2분기 5.20%에서 작년 4분기 7.27%로 높아진 뒤 올해 7월 5.29%로 낮아졌다. 91일 물 CD 금리는 2005년 2분기 3.51%에서 작년 3분기 5.69%로 높아졌다가 올해 7월 2.41%로 하락했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기준 소득분위별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1천180만 원)가 25.7%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로또 당첨 모르는 걸까?

1등 당첨 17건 수령안해 지난해 미수령금 455억

지난해 온라인 복권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배포 자료를 통해 지난해 로또 당첨 미수령금이 125만건, 455억원에 달하며 올 1분기에만 88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수령 당첨금은 2005년 488억원, 2006년 580억원, 2007년 396억원이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지 않은 사례가 총 17건이었다. 2005년 3건, 2006년 6건, 2007년 2건, 2008년 6건이었다.

이혜훈 의원은 "국고에 귀속된 미지급 당첨금은 복권 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활용된다"면서 "미지급 당첨금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